

[개념/공부법] 공부의 핵심 행동 양식

작년 6월 평가원 대비 분석서에서 써 놓았던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글입니다.
이미 국어 가이드북을 받은 분들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국어 공부를 잘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1) 머리가 아프다.

제가 '인식과 이해'에 대해서 설명했었지요. **A는 노래방에 갔다. 따라서 A는 감기에 걸렸다.** 와 같은 문장이 있다면 '왜 앞 문장이 원인이고, 뒷 문장이 결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조금 확장하면 '평가원은 쓸데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부서어나 부서질, 보조사, 접속사 등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이런 걸 굳이 써 놓았다는 이야기는 지문 쓴 사람이 그걸 중시한다는 뜻이겠지요. 그걸 찾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지문을 쓴 사람은 '왜' 그걸 썼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뭐, 글쓴이와 대화하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매번 새로운 것이 보인다.

기출문제가 매번 똑같다면 기출문제의 피상적인 측면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출을 통해 행동양식을 얻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글을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빨리 하게 된다.

문장은 본인이 낼 수 있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읽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읽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글 튕김'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선택지를 판단해 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선택지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가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4) 글이 쌓이는 느낌이 든다.

글을 읽을 때 읽은 글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문장을 읽고도 **뭘 읽었는지 모른다**면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학생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서에서의 의문사입니다.

글이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 글이 쌓이지 않는다면 I

- 의미를 읽지 않고 글자를 읽는가
- 반추를 하지 않는가
- 본인의 속도보다 빠르게 글을 읽는가
- 연결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

I 의미를 읽지 않고 글자를 읽는가 I

만약 본인이 의미를 읽지 않고 글자를 읽는 느낌이 든다면, 문장 하나, 구문 하나부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장을 분절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분절이야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테고, 문장을 요약한다는 건 **특정한 문장이 무엇에 대한 문장인지** 설명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이벤트 로그에서 프로세스에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뒤쪽에 나올 6평 관련 문제인데요. 이 문장을 요약하면 '프로세스 마이닝의 역할 + 이벤트 로그를 확보하는 방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연결하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I 반추를 하지 않는가 I

이번 6월 평가원에서의 독서 두 번째 (인문) 지문은 반추하지 않으면 '내가 뭘 읽고 있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지문이었습니다. 정보량이 많으면 첫 단락에서의 방향성 설정한 기억은 어디론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독해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각 단락을 읽고 난 뒤, 첫 단락에서 우리가 잡은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I 본인의 속도보다 빠르게 글을 읽는가 I

글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시간은 글을 읽는 속도를 통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 판단의 속도 증가, 손가락 걸기의 비율 조절, 그리고 지문과 문제를 왔다갔다하는 시간의 감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I 연결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 I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서술자는 지문을 쓸 때 연결성과 쓸데없음에서 많은 힌트를 줍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5) 일관된 기준이 있다.

모의고사를 푸는 태도, 국어 지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일관된 대답이 있으세요?

첫 단락에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없다면, 최대한 정확한 기준을 섬세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기출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I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I
답의 근거
단어와 문장의 존재 이유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 방법
유사한 기출

답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만 생각보다 제대로 해 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단어와 문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출제자가 이 자리에 이 문장을 배치했는지, 왜 이 접속사를 썼는지, 왜 이 보조사를 썼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요. 아마 제 수강생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 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콰인이 얼핏 보면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의 주장을 하고 계신 걸 알 겁니다. 하나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하나는 '전체 지식이 시험의 대상'이라는 주장이겠지요. 이 문장을 읽고 그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서술자는 여기서 왜 '위해'를 썼을까요? '위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앞말과 뒷말이 원인과 결과로 묶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접속사의 사용, 비필수 성분의 사용 등이 있는데 그건 차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문장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에 기출된 'DNS 스푸핑' 지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 단락에 네임서버에 대한 내용이 특 튀어나오네요. 왜 저러는 걸까요?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네임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을 이용한다.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것의 전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험장에서 가능하면 더 좋고요.

특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칼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정답률 데이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아실 텐데요. 평가원 역시 이 정답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킬러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앞과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기출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문제나 지문이 막힐 때 생각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 다뤘던 걸 기억해 주세요.

7) 시간이 줄어든다.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실력의 부족이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 부족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 시간 부족의 해결 |
- 지문을 읽는 시간의 확보
- 선택지에 대한 예측
- 선택지 판단의 우선순위 확보
- 선택지 판단에 대한 시야 변경
- 손가락 걸기의 활용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 지문을 읽는 시간의 확보 |

수강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읽기가 아니라 판단에서 줄이는 것이다.** 이 책에서 몇 번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국어는 이해의 과목입니다. 글을 빠르게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글을 읽는 것이고, 이해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여기서 쓰이는 말입니다.

| 선택지에 대한 예측 |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것이 선택지로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 두 개를 열심히 비교하고 있으면 해당 내용이 선택지로 출제될지.

문장이 매우 길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 깊게 읽어야겠지요. 지문의 핵심이 어려운 문장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구조독해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은 벼에서 쌀 뺏듯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쓱쓱 뽑아서 (연결 또는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만 평가원은 항상 그들을 저격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뽑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걸 이해해야 해요. 막말로 기출문제 공부할 때 기출문제 답만 외우나요? 그 주위 개념들을 공부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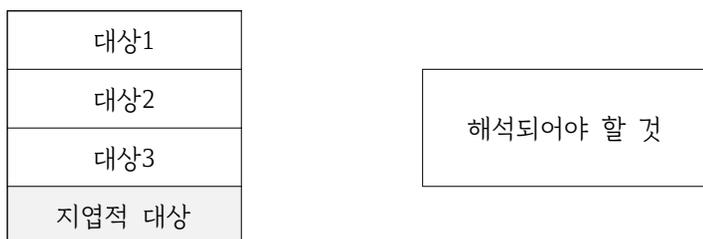
선택지를 예측하면 판단 시간이 줄어드니 당연히 시간 부족을 해결할 확률이 높겠지요.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I 선택지 판단의 우선순위 확보 I

어떤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선택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표현법 문제에서의 시점, 갈등, 공간, 시에서의 상황과 반응 등이 그것인데요. 선택지에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다른 말로, 세모를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I 선택지 판단에 대한 시야 변경 I

선택지 판단에 대한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시하는 도식 기억하세요?



대상1, 대상2, 대상3은 문학의 경우 시구, 또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독서의 경우 학자들 각각의 주장과 같은 지문 중심 구조를 의미하겠지요.

우리는 이들 대상을 만났을 때마다 사고를 '쌓아가며' 중심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이해되어야 할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택지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지엽적인 대상을 만나거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아내가 권 씨에 대한 소식을 듣는 부분 등, 소설에서 흔히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대상(<병신과 머저리>에서의 '얼굴' 등 해석이 안 되는 대사나 행동, 시구)을 만나면 '이해한' '해석되어야 할 것'을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알고리즘은 독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선택지의 '지엽적인 대상'을 이미 이해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I 손가락 걸기의 활용 I

손가락 걸기 역시 중요합니다. 문학은 원칙적으로는 틀린 것 찾기 게임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데 - 확실히 틀린 게 있다면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답은 명확하다는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